

우윤근 “힘있는 인물 짝어야” 정인화 “3선 피로감… 바꾸자”

4·13 총선 현장, 이곳이 뜨겁다

<5> 광양·곡성·구례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서 광양의 유권자는 곡성과 구례의 유권자를 합친 수보다 2배 이상 많다. 따라서 곡성과 구례 출신은 당선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지 출마자 7명 모두가 광양 출신이다.

이곳에서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4선 도전에 맞서 국민의당에서는 정인화 전 광양부시장이 나섰다.

또 새누리당 이승안 순천제일대 겸임교수, 민중연합당 유현주 전남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무소속으로는 박형모 오광환경 중흥아파트 철거소장, 최유성 전 장안대 산학협력단 연구원, 장대법씨 등이 각각 표발을 다지고 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현재 이곳의 선거구도를 더민주 우 후보와 국민의당 정 후보의 양강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마다 두 후보가 2위권을 멀리 따돌리고 1위 싸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 후보는 “4선에 성공하면 국회부의장 또는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당 경선전이 한창일 때 바꾸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큰 인물을 키우자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별로 광양에는 3선에 대한 피로감이 조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중연합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름	이승안	우윤근	정인화	유현주	박형모	최유성	장대법
나이	62	58	58	45	48	51	38
역력	·전 광양제철소 패밀러사 대표이사 ·전 당 광양·구례 당협위원장	·현 당 비대위원 겸 선대위원장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전 광양·여수부시장 ·전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전 전남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전 전남도의원	·현 오광환경 중흥아파트 철거소장 ·현 전곡 미술중재자결기 시민연대 대표	·전 이낙연의원보좌관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현 유네스코위원회 ·현 월드비전후원위원
공약	·세종산단 국가산단화 추진 ·포항공단 분교 광양 유치	·경전선 KTX 광양역 운영 추진 ·곡성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삼진강환경유역청 유치 ·삼진강연어 브랜드화	·매실전문가공단지 조성 ·환경대학 곡성 유치	·삼진강특별시 추진 ·고위직공무원 임급 피크제 시행	·외국자동차 조립·개조 공장 유치 ·농업 6차 융복합산업 센터 건립	·어린이놀이공원유치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대의학병원 유치

더민주-국민의당 양강구도 속 민중연합당 유현주 추격

7명 모두 광양 출신 ... 동광양·광양읍 소지역주의 우려

금 있지만 구례와 새로 편입된 곡성에서는 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선거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 승기를 잡았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정 후보 측은 “우윤근 의원의 대항마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으로 양강구도를 형성해 있다”며 “3선 피로감 때문에 바꾸자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 의원이 지난 10년여 동안 지역발전 위해 한 것이 없다는 여론이 유권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그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

어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광양과 구례에서는 우 의원에 대한 3선 피로감이 심하고 곡성의 경우 우리가 열세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민심은 조금 양호해 분리가 된다”며 “곡성에서는 선거구가 이리저리 옮겨지면서 허탈감이 심해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우 후보 측은 “쏟아지고 있는 여론조사는 일부 응답률이 16%가 넘는 경우가 있는 등 신뢰하기 힘들다”며 “양강구도라는 주장도 정당지지도 때문이어서 점차 민중연합당에 대한 이해가 확산하면 지

지침이 더 넓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9대 총선 때도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도가 4~5%였지만 실제 총선에서는 32.46%를 득표했다”며 “일단 3강 구도를 만들고 이후 좀더 노력하면 박빙 차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양강구도의 선거가 흐를 경우 45%를 당선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유 후보를 포함한 나머지 5명 후보의 득표율이 10~20% 수준에 머물 것이라 예상에서 나온 수치다.

우 후보 측은 현재 전남도의원과 시·군의원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우 후보 측은 “광양의 도의원 3명과 시의원 11명(무소속은 2명)이, 구례는 유일한 도의원 1명과 군의원 7명 중 5명, 곡성의 경우 7명의 군의원 중 6명이 더민주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전직 도·시·군의원 대다수가 국민의당으로 들어온 상황이며 현직 지방의원 등 여론주도층은 우 의원에 우호적이지 모르나 바닥에서는 바꾸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표율이 높은 40대 이상에서 국민의당 지지도가 높아 득표율 45%를 자신하고 있다.

광양에서는 소지역주의가 있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동광양과 광양읍의 인구 비율은 6대 4에 정도로 분석된다.

우 후보는 동광양, 정 후보는 광양읍 출신이다. 그런데 동광양은 외지인구 비율이 높아 소지역주의 경향이 거의 없고 광양읍은 토박이들이 많아 소지역주의 경향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정 후보 측은 “광양읍 뿐 아니라 봉강·옥룡·다압·진월면 등 시골에서는 반문재인 정서가 강해 유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광양지역의 노동조합원 5000여명과 곡성·구례의 농민운동 조직은 우 후보 측 지지층으로 분류된다.

우 후보는 광주 사례지고, 정 후보는 광주공고, 유 후보는 서울 출신이어서 학연 영향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보마다 무소속 정형복 시장의 지원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지만 정 시장은 공식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년 후 지방선거를 고려해 물밑에서 특정후보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역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광양=박형모기자 pyj4079@kwangju.co.kr

침체된 광양항 살리기 최대 이슈로

■쟁점 및 공약

광양·곡성·구례 총선의 최대 쟁점은 광양지역 경제 침체다.

광양은 제철과 컨테이너항만으로 전남 동부권의 신중공업도시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10여년 철강산업의 쇠퇴와 투포트 시스템의 사실상 붕괴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다. 지방세만도 지난 10여년 전 최대 800억원 규모에서 80억원대로 10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후보의 4선 저지에 나선 후보들은 일제히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3선 12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광양의 제2 도약’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과 광양항을 국가 중추 투포트(항만)로 육성하려 했던 김대중 정부 때 사업이 참여정부부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는데도 우 후보는 사실상 이를 방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우 후보는 광양항 살리기에 나서 국내 최대 물류·산업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는 “24일 컨테이너크레인 추가 설치하는 등 광양항 투포트 정책 재실행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중연합당 유현주 후보는 광양항을 통일대비 물류중심항으로 준비, 광양제철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동북아물류모

델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또 무소속 최유성 후보는 광양항 배후부지 중 비어있는 25만㎡의 일부에 러시아 에너지지원 터미널 등 물류기지를 설치, 광양항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각 후보들은 다양하고 독특한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

새누리당 이승안 후보는 ▲세종산단 국가산단화 추진 ▲이순신대교 지정 국도 승격 ▲포항공단 분교 광양 유치 등을, 우 후보는 ▲경전선 KTX 광양역 운영 추진 ▲특성화 대학 및 예술대학 유치 ▲곡성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등을, 정 후보는 ▲삼진강환경유역청 유치 ▲삼진강연어 브랜드화 ▲행정구역 내 고속도로 무료 이용 등을 각각 약속했다.

또 우 후보는 ▲매실전문가공단지 조성 ▲지리산·삼진강·남해안 연결 국제생태비엔날레 추진 ▲환경대학 곡성 유치 등을, 무소속 박형모 후보는 ▲삼진강 특별시 추진 ▲서울대 광양 백운산 캠퍼스 유치 ▲고위직공무원 임급피크제 시행 등을, 무소속 최 유 후보는 ▲외국자동차 조립·개조 공장 유치 ▲농업 6차 융복합산업센터 건립 ▲곡성·구례 ‘한국문화 국제비엔날레 개최’ 등을, 무소속 장대법 후보는 ▲어린이놀이공원 유치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대체의학병원 유치 등을 각각 공약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총선 불출마 김한길 오늘 광주 지원유세 나선다

수도권지역 지원 아직 검토 안해

4·13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 오는 6일 광주에서 선거운동 지원에 나선다. 김 의원은 서울 광진구 국민의당 후보로 공천됐으나 야권연대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의 이번 행보는 지난달 11일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의 야권통합·연대 거부에 반발하며 상임 선대위원직을 사퇴하고 난 뒤 26일 만에 첫 공식 일정이다.

후보단일화를 위한 사실상의 데드라인으로 간주돼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고 후보단일화를 둘러싼 공방이 정리 국면에 접어들자 야권연대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김 의원의 자연스럽게 정치 행보를 재개하는 모습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5일 “김 의원이 내일 광주에 내려가 지역구에 출마한 의원들을 돕기로 했다”며 “당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호남은 야권연대 논란에서 벗어났던 곳”이라며 “호남 후보들로부터 지원 요청이 많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수도권 지역 지원유세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야권연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만큼, 연대가 이뤄지지 않고 야당 후보끼리 경쟁하는 지역에서는 선거지원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정의화 국회의장 내일 조선대 개교 70주년 기념 특강

정의화 국회의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광주를 방문, 대학생과 지역 언론사 사장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어서 ‘새로운 정치판을 위한 정치 결사체 구성’을 예고한 그가 총선 후 행보를 밝힐지 주목된다.

5일 조선대에 따르면 정의장은 7일 오후 3시 조선대에서 ‘청년의 꿈이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란 주제로 강연한다. 이 강연은 개교 70주년을 맞는 조선대 측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정의장은 또 같은 날 ‘친정’인 새누리당 광주시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언론사 사장들과 만찬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박(비박근)계로 분류되는 정의장은 최근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



관찮은 사람들과 모여서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권 밖 정계 개편의 촉매 역할을 공언한 셈이다.

정의장 측 관계자는 “정의장은 정당을 만든다기보다 연구원 형태의 조직을 통해 여·야 가리지 않고 뜻있는 인사들을 모아 정책을 생산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물속에 메기를 두면 위험요인이 생겨 주변 물고기들도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는 ‘메기론’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ipark@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장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카메라로 떠나는 일본 후쿠오카 벚꽃+온천 여행~!!

출발일 5/8, 5/14, 5/22, 5/29

- ▶ 가족과 함께 떠나는 아мага세 고급 별장 온천여행 4일 ₩529,000~
- ▶ [품격] 전통료칸 온천여행 4일 ₩559,000~
- ▶ [고품격] 전통료칸 온천여행 + 후쿠오카 특급 4일 ₩599,000~
- ▶ 부관철회 북규슈 미야지마, 이와쿠니 3박4일 특가 1인당 ₩449,000~

포 함 : 선박왕복, 유류세, 부두세, 일정표상의 일정, 입장료, 가이드비, 국내수송비
불포함 : 여권 및 개인경비, 싱글차지

2016년 무안출발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 여행!!

출발일 7/28, 8/1, 8/6, 8/11

울란바토르, 테를지

3박5일 ₩1,499,000	출발일 : 7/28, 8/11
4박6일 ₩1,649,000	출발일 : 8/1
4박6일 ₩1,599,000	출발일 : 8/6

*불포함 : 싱글차지, 호텔(2인실)/케르(4인실기준),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발발사지 봉사료

트래킹

3박5일 ₩1,499,000	출발일 : 7/28, 8/11
4박6일 ₩1,599,000	출발일 : 8/1
4박6일 ₩1,549,000	출발일 : 8/6

민족의 영산 백두산!!

무안공항 - 연길 / 백두산 전세기

- ▶ 출발일 7/13 ~ 8/24(수, 토 출발)
- ▶ 북파·용정·도문 4일 [실속] ₩1,140,000~ [품격] ₩1,250,000~
- ▶ 북파·서파(천지2회) 4일 [실속] ₩1,250,000~ [품격] ₩1,340,000~
- ▶ 북파·서파·용정·도문 5일 [실속] ₩1,290,000~ [품격] ₩1,390,000~

*불포함 : 싱글차지, 개인경비 및 공항수송비, 가이드/기사팀(3박~\$30, 4박~\$40)

무안 ↔ 북해도(삿포로) 전세기 취항

출발일 7/31, 8/4, 8/8, 8/12

-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로 5일 ₩1,599,000~
- * 삿포로 1일 자유일정
-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로, 후라노, 비에이 5일 ₩1,699,000~
- * 3대 개요리 포함
- ▶ 노보리베츠, 도야, 오타루, 삿포로, 하코다테, 후라노 5일 ₩1,799,000~
- * 3대 개요리 포함

*불포함 : 개인경비, 기타매너티, 기사&가이드 경비(₩4,000)/인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 ▶ 북경, 만리장성 4일 ₩650,000~ *화요일 출발
- ▶ 북경, 고북수진 4일 ₩750,000~ *화요일 출발
- ▶ 연산, 태항대협곡 5일 ₩1,150,000~ *금요일 출발

*불포함 : 개인경비, 매너티, 선택관광

인천에서 떠나는 중국의 숨은보석 산동성!!

▶ 산동성(치박, 제산, 제남) 4일 ₩699,000~

*특전 : 광주-인천 왕복 수송 포함!!!

*불포함 : 개인경비, 매너티, 선택관광, 광주-인천 이동 중 식사

직원 및 일본어 가이드 모집

- 모집인원 0명
- 외국어구사 능력자 우대
- 해외여행에 결속사유가 없는 자
- 운전면허 소지자
- 홈페이지 관리 유경험자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공동초점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장금 가입(해외여행상품1억원, 국내상품5천만원), 관광진흥법제정기금, 관광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전지차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 영업보장보험 가입 / 여행보험 가입업체 ● 예약시 계약서(예약승인)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봉사료, 선택관광,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성형에 따라 다름